



보도자료

“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”

- ▶ 보도일시: **2013.3.28.(목) 조간**
<인터넷 3.27(수) 12:00 이후>
- ▶ 총 4 쪽

❖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과 장 하 헌 제
사무관 전 대 환
☎ 02-2110-7244, 010-8241-3357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(알림마당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고용과 복지 칸막이 없앨 해법 찾는다

- 방하남 장관, 27(수) 취업성공패키지 및 희망리본 관계자
간담회 개최

-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27일(수). 15:00, 고용노동부 사회의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일을 통한 탈 빈곤을 지원하는 고용·복지서비스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, 효율적인 고용·복지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.
-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대표적인 부처간 칸막이 사례로 지적되어 왔던 취업성공패키지(고용부-고용센터) 및 희망리본(복지부-자치단체) 참여자와 운영자가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.
-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의 효율적인 연계·협력을 위한 기본방향*은 국정과제에서 이미 제시되었고, 세부 시행방안은 고용부-복지부 추가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인 바,
- *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우선적으로 고용센터(취업성공패키지)에 의뢰하여 일반노동시장 취업 지원, 개인·가구여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는 특화프로그램(희망리본·자활센터 등)에서 집중관리로 재도전을 도모

- 고용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은 적극적으로 검토·협의를 나가기로 했다.
- 간담회 참석자들은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의 장점을 살리면서 연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,
 -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는 물론 중앙과 지방,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.
- 방하남 장관은 “일하는 사람을 늘리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고용·복지서비스가 패키지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”고 강조하면서,
 - “조직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행복의 관점에서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부처간·사업간 칸막이를 낮춰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전대환사무관(☎ 02-2110-7244)에게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붙임>

고용-복지 연계 활성화 관련 간담회 개최 계획

1. 목 적

-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고용·복지서비스 연계 실태 파악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도출

2. 간담회 개요

- (일시) '13.3.27(수), 15:00~16:00(60분)
- (장소) 1동 소회의실(2층)
- 참석자: 14명
 - (고용부) 장관님, 고용서비스정책관,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담당자 2명(관악, 안산센터)
 - (자치단체)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2명(관악구, 수원시)
 - (수급자)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6명
 - (희망리본 수행기관) 경기희망리본본부 본부장·안산센터 소장 등 2명
 - * 사회: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
 - * 배석: 고용서비스정책관, 본부 취업성공패키지 및 직업훈련 담당자 등

3. 주요 내용

- 우리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복지부 희망리본 사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

- 현장 관계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 및 탈수급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

< 간담회 행사 세부 계획 >

시 간	주요 내용	비 고
15:00 ~ 15:05(5분)	참석자 소개	사회: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
15:05 ~ 15:10(5분)	장관님 인사말씀	
15:10 ~ 15:55(45분)	고용-복지 연계 토론	
15:55 ~ 16:00(5분)	장관님 마무리 말씀	